

시도지사 침수 예방·수산업 피해 점검 잔걸음

이용섭 시장, 상습 침수 운암동 공구의 거리 찾아 근본 해결 약속

김영록 지사, 송영길 대표와 강진 마량 방문 전북 폐사 지원 요청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상습 침수지역과 호우 수산업피해지역을 긴급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6일 오후 광주전 중보를 직접 방문하고, 북구 운암동 공구의 거리 상인회 등 지역주민과 함께 집중폭우에 따른 광주전 역류 및 침수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폭우로 인해 광주전 역류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광주전 침수 대책 마련 요청 등에 따라 추진됐다.

주민들은 “광주전 수위와 공구의 거리 일일 지대의 높이가 같아 폭우 때마다 하수도 물이 광주전

으로 흐르지 못하고 역류해 도로와 상가가 잠기고 있다”면서 “특히 공구는 물에 취약해 폭우 때마다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하천 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한 공구의 거리 인근 지대의 침수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 시장은 보 교체, 하수관로 정비,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종합계획 수립 등 다양한 대책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민의 불안감, 불편함이 직접 표출되는 민원은

수시로 점검하며 챙기고 있다”며 “시민이 삶의 터전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7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함께 집중호우로 전북 대량 폐사 피해를 입은 강진 마량해역을 찾아 송 대표에게 피해 어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지역에선 장흥, 강진, 해남, 진도를 중심으로 16일 현재까지 701억원의 해양수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 지사는 송 대표에게 “집중호우로 인해 전북이 전량 폐사한 어가가 지속 가능한 어업을 도모하도록 해상가두리에 전북 치패 임식비를 지원하고 양식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어업경영자금 상환 및 이자감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

마다 반복되는 해양수산 분야 재해복구 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현재 실거래가의 25.7% 수준인 지원 단가를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어류 치어와 전복 치패가 복구 산정기준에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보상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집중호우 이후 전남 일부 지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돼 수산양식 분야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수온 피해 최소화화를 위해 수심 조절이 가능한 가두리 그물망 설치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고수온, 적조 등 해양수산 피해가 우려되므로 재해예방을 위해 어업인에 양식어장 관리요령 등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 시장이 16일 오후 폭우 상습 침수지역인 북구 운암동 공구의 거리 인근 광주전을 찾아 공구의 거리 상인회, 지역주민들과 함께 폭우 시 광주전 역류 및 침수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진군 마량면 피해양식장을 방문, 어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해남·무안에 들어선다

농식품부 지원사업 선정

농식품부의 '2021년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지원사업'에 해남 화원농협과 무안농협이 선정됐다. 전국 총사업비 200억원 중 85%인 170억원(국비 68억원)을 확보해 배추, 양파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한 출하 조절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 화원농협과 무안농협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현대화된 출하 조절 시설 및 장비 구축에 들어간다. 화원농협은 사업비 100억원으로 저온저장시설 6600여㎡를 비롯해 예냉시설 390여㎡ 등을 갖춘 대규모 배추 출하 조절시설을 구축한다. 전남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배추와 봄·가을배추를 시기별로 출하 조절해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한다.

무안농협은 70억원을 들여 저온저장시설 3960여㎡와 현대화된 대규모 큐어링(상처 부위 치유) 시설 등을 도입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양파 수매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양파 주산지의 출하 조절시설 역할을 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여행업계 지원

여행상품 지원금 올리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현장 여행업계의 의견을 전폭 수용해 전남 여행상품 운영 관련 인센티브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액도 파격적으로 상향하는 등 어려운 여행업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여행사 등에 차량 임차비, 체험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대유행 지난해 3월부터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해외관광객 입출입은 물론 여수국제크루즈항으로 입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국내관광객 유치를 통해 전남 관광산업의 안정적 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도여행 으뜸상품'과 '전남으로 체험여행하자'에 48개 업체 177개 여행상품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으로 여행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행업계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등과 소통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센티브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내 단체여행 차량 지원비를 당초 4~8인 10만원, 8~14인 20만원, 15인 이상 30만원이던 지원 기준을 4~14인 25만원, 15인 이상 30만원으로 지원금액은 상향하고 지원 기준은 대폭 완화했다.

신청서류도 기존에는 음식점업과 숙박업소 이용확인서, 여행객 단체사진, 여행자종합공제조합, 코로나19 방역명부 등으로 많았으나, 숙박 및 식사 영수증만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빛그린산단 통근버스

5개 노선, 19일부터 운행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인 광주 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이 들어선 빛그린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19일부터 무료로 통근 버스를 이용하게 됐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 경제고용진흥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에 선정돼 2억원을 지원받았다. 광주 경제고용진흥원은 빛그린 산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선 결정을 위한 수요 조사를 하고 조달청 공모를 거쳐 운행 용역 사업자를 선정했다. 효천지구, 일곡지구, 산수오거리, 방림동 휴먼시아, 송정역을 출발해 빛그린 산단에 도착하는 5개 노선이 운행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19명...작년보다 12명 감소

캠페인·보행안전 대책 등 효과

지난 상반기 광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명)보다 12명 줄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6명, 2018년 37명, 2019

년 20명 등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TAAS)에 수치가 입력된 2005년 이후로는 가장 적은 수치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의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117명, 2018년 75명, 2019년 49명, 지난해 62명이었다.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지난해 이륜차, 렌터카 등

사고로 늘었지만 올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광주시는 지난해 사망자가 반등하자 범시민 캠페인, 보행안전 종합계획 수립 등 대책을 추진했다. 교통사고 잦은 곳 14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야간 교통사고 발생 구간 횡단보도에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을 설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 30일까지...미등록 과태료 면제

광주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반려견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동물이 2개월령이 넘으면 30일 이내 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신청하면 되며, 등록하지 않

을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추정 반려견 16만4000마리 대비 등록된 반려견은 5만4000마리(6월말 기준)로 등록률이 33% 정도에 그치고 있는 만큼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월부터 ‘내장형 동물등록지원사업’을 시작해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할 경우 5000마리 한도 내에서 1마리 당 3만원(1인당 최대 3마리 9만원까지)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예금 한시모집

특판시기 : 2021. 7. 5 ~ 7. 23 (3주), 한도소진시 판매 종료

유니온 정기예탁금

12개월 연 2.06%

(세전 / 만기해지)

파워 정기예탁금

18개월 연 2.0%

(세전 / 만기해지)

① 신탁ON뱅크 어플 다운로드 후 조합원 가입 ② 상품물 → 유니온정기예탁금 ③ 가입신청

출자금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

(광주 북구 및 광산구 거주민 가입 가능)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파란적금 36개월 2.0%

(온뱅킹 전용상품)

세전 / 만기해지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탁금 및 적금은 신탁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조한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광주 북구 문신로 38)

266-4150

양산지점
(북구 양산로 59)

573-4150

운암지점
(북구 북문대로 88)

528-4150

동림지점
(북구 북문대로 238)

513-4150

매곡지점
(북구 설죽로 315번길1)

572-4150

첨단지점
(북구 첨단신로 100번길2)

576-4150

동광주지점
(북구 동문대로 187)

264-4150

각화지점
(북구 동문대로 283, 285)

263-4150



평생어바바

광주문화신탁

신탁중앙회 심의결 제2021-15호(2021.7.6.) 유효기간 2021.12.31.까지